

法頂의 詩 세계에 나타난 존재의식과 사회의식

여태동*

• 목 차 •

- I. 서론
- II. 『大韓佛敎』에 기고한 詩 12편
 - 1. 자연친화적인 1960년대 초기 詩
 - 2. 실존적 고민이 담긴 1960년대
 - 3. 사회참여에 눈뜨는 1960년대 후기 詩
- III. 사회 참여적 성격의 1970년대 詩
 - 1. 『씨울의 소리』에 게재한 저항 시
 - 2. 미발표된 저항 시
 - 3. 저항 시 발표 이후 신변의 변화
- IV. 결론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 『大覺思想』 제34집 (2020년 12월), pp.179-217.

한글요약

본 논문은 우리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영혼의 모음’을 일깨운 법정스님(1932~2010)의 시 세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했던 법정이 15편의 시를 썼다는 사실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정은 1960년대 초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존재론적 고뇌를 담은 시를 쓰기도 했고,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참여시를 쓰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저항 시까지 쓰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민주화 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법정은 출가 후 해인사에서 강원과 선원에서 대중생활을 하며 수행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 그곳에서는 당대의 강박이었던 운허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웠다. ‘팔만대장경의 숲’에 침잠했던 법정은 해인강원을 졸업하며 1960년에는 통도사로 가서 『불교사전』 편찬에 동참했다. 이러한 역경의 전법 활동을 이끌어 준 스님은 운허스님이다.

이후 서울로 상경한 법정은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불교신문의 전신인 『大韓佛敎』에 14편의 시를 남겼다. 1960년대 초기에는 자연 친화적인 시가 주를 이룬다. 1960년대 중기에는 실존적 고민이 담긴 시들이 들어 있다.

1960년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아 법정의 시 경향은 또한 번 변화한다. 존재론적 고민의 흔적을 넘어 좀 더 우울함이 더해지는 경향이 그것이다. 이는 내부적인 심적 변화라기보다는 사회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문제 제기도 하면서 부닥치는 심적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이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해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개정해 통과시킨 후 독재체제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항거했던 법정은 당대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참여시인’의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정에 대해 논할 때 『무소유』를 쓴 작가로 대표적인 수필가로 알고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초기에는 자연친화적인 시를 썼고 중기에는 실존적 고민의 흔적이 들어 있는 시를 썼으며 후기와 1970년대 초기에는 사회민주화를 위한 ‘참여시인’의 시 경향 추이가 보인다는 점은 새롭게 조명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이 불교계를 비롯해 우리사회에 널리 인식되어 불교민주화 운동 역사와 법정사상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法頂, 시, 『무소유』, 『大韓佛敎』, 『불교신문』, “대장경의 숲”, 해인강원, 통도사, 참여시인, 유신헌법.

I. 서론

우리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영혼의 모음’을 일깨운 법정스님(1932~2010, 이하 법정으로 명칭)이 시를 썼다는 사실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정은 존재론적 고뇌를 담은 시를 쓰기도 했고,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참여시를 쓰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저항시까지 쓰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민주화 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법정은 출가 후 해인사에서 강원과 선원에서 대중생활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 그곳에서는 당대의 대강백(大講伯)이었던 운허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웠고, 해인강원을 졸업하며 1960년에는 통도사로 가서 『불교사전』 편찬에 동참했다.

해인사 선원(禪院)에서 좌선을 익히고 강원(講院)에서 불교의 경전을 대하면서 한국불교의 현실 앞에 적잖은 갈등과 회의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전통과 타성에 젖어 지극히 관념적이고 형식적이며 맹목적인 이런 수도생활에 선뜻 용해되고 싶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장경각(藏經閣)에서 따로 예불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응시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런 해인사 시절 내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그때 선원 조실스님으로 금봉(錦峰)선사가 계셨는데 함께 조실 방에 들어간 도반과 선사의 문답을 곁에서 듣다가 나는 번쩍 귀가 뜨이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도반이 조실스님께 여쭙었다. “저는 본래면목(本來面目) 화두(話頭)를 하는데 의문이 가지 않아 공부가 잘 안됩니다.”

본래면목이란 부모에게서 낳기 이전 본래의 내 모습은 무엇이냐는 의문. 화두란 참선할 때 끝없이 추구하는 명제다. 이 말을 들은 선사는 즉석에서 다그쳤다. “본래면목은 그만두고 지금 당장의 그대 면목은 어떤 것인가?”

이 법문을 듣고 섬광처럼 부딪혀온 그때의 전율 같은 감흥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는 더 물을 일이 없었다. 이때부터 좌선하는 일에 재미가 나서 무료하지 않았다. 잔잔한 기쁨으로 맑은 정신을 지닐 수 있었다.¹⁾

어린 시절이었던 소학교 시절 연필을 선물 받고 좋아했던 법정은 대학시절에는 춘원 이광수의 작품을 읽으면 문학청년으로서의 포부를 키웠다.

1) 법정, 「아직 끝나지 않은出家」, 『버리고 떠나기』, 샘터사, 1993, pp.263-264.

출가 전 대학시절에도 문학을 좋아했다. 특히 춘원 이광수(1892-1950)를 좋아했던 법정은 출가 후에도 틈틈이 춘원의 작품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²⁾

출가 후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의 숲에 침잠했던 법정은 그곳에서 강원과 선원 생활을 통해 수행자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했으며 전법의지를 다지며 경전번역에 매진한다. 법정은 역경을 통한 전법의 길을 이끌어 준 운허로부터 통도사로 내려오라는 부름을 받으며 원고지와 의 인연을 맺는다.

또 한 가지 일은 방선(放禪) 시간에 법당 돌레를 거닐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온 듯한 아주머니 한 분이 장경각에서 내려오면서 나를 보더니 불쑥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밤금 보고 내려오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 그 빨래판 같은 것이요’라고 되물었다. ‘빨래판 같은 것’이라는 이 말이 내 가슴에 화사처럼 꽃혔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한낱 빨래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그해 여름 안거를 마치고 나는 강원으로 내려가 경전을 배우기 시작했다. 국보요, 법보라고 해서 귀하게 모시는 대장경판이지만, 그 뜻이 일반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는 한낱 빨래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를 끝없이 부추겼다. 어떻게 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말과 글로 옮겨 전할 것인가, 이것이 그때 내게 주어진 한 과제였다.

그 몇 해 뒤 통도사에 계신 운허(耘虛)스님에게서 한 통의 서찰이 왔다. 자금을 댈 시주나 나타나 숙원사업이던 『불교사전』을 만들까 하는데 통도사에 와서 편찬 일을 도와 줄 수 없겠느냐는 사연이었다. 기꺼이 동참했다. 60년 초봄부터 이듬해 여름 사전이 출간될 때까지 편찬 일을 거들었다. 이 기간에 4.19와 5.16을 겪었다. 이때 운허스님과 맺은 인연으로 해서 원고지 칸을 메우는 업이 지속되었다.³⁾

경전번역 사업은 이후에도 이어져 1963년에는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편찬하는 불사에도 동참했다. 법정은 동국역경원의 역경위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경전번역을 하면서 『大韓佛敎』에 틈틈이 불교설화를 기고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詩)를 기고하기도 했다.

당시 동국역경원은 동국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大韓佛敎』 역시 동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류가 원활했던 시기다.⁴⁾ 이러한 인연으로 법정

2) 백원기, 『자연 관조와 명상, 시가 되다』, 운주사, 2019, pp.13-14.

3) 법정, 「아직 끝나지 않은 出家」, 『버리고 떠나기』, 샘터사, 1993, pp.264-265.

은 1963년부터 불교신문의 전신이었던 『大韓佛敎』에 간간이 시(詩)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법정의 문학활동에 영향을 준 인물은 시인 고은(당시는 ‘一超’라는 스님으로 활동)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 고은은 법정이 문단에 데뷔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문단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은은 『현대문학』에 법정의 산문이 실리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법정의 대표작인 『무소유』에 실린 「무소유(無所有)」라는 글도 『현대문학』의 1971년 3월호에 실린 작품이다. 이후 「소음기행(騒音紀行)」이라는 작품도 1972년 12월호에 실렸다.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한 법정은 당시 불교계에 유일한 신문이었던 『大韓佛敎』에 시를 기고했다. 또 1970년이 지나면서 당시 대표적인 사회민주화 잡지였던 『씨울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를 비판하는 시를 실어 사회에 반항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법정 스스로도 상당한 고초를 겪었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로 고뇌하다가 송광사 뒤편 불일암으로 들어가 자연으로 회귀해 자연 친화의 생태적인 삶을 살았다.

법정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미미하고 시(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다. 법정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승려 법정에 관한 논문으로는 성신여자대학교의 김옥수가 쓴 「법정선사(法頂禪師)의 선차문화(禪茶文化)에 관한 연구」의 박사논문 1편과 순천대학교 정희의 「법정(法頂)의 ‘무소유’ 연구」, 동국대학교 이명숙의 「법정(法頂) 수필 연구」, 원광대학교 홍화식의 「法頂禪師의 茶禪思想 研究」 등 석사논문 3편이 보인다. 일반논문 역시 수필집 『무소유』와 관련, 선적사유와 생태윤리와 생태주의 연구에 관한 일반논문이 4편이 보이고, 그리스도교의 청빈사상과 불교의 무소유 정신을 비교한 일반 논문 1편이 조사된다.⁶⁾ 이들 논문에서는 법정의 차(茶)문화나 ‘무소유 사상’에 대한 연구가

4) 1960년대 말 『大韓佛敎』 편집국장 겸 주필로 재직했던 송재운 전(前) 동국대 교수는 2020년 9월 28일 필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1964년 동국역경원이 동국대학교에 설립됐고 『불교신문』의 전신인 『大韓佛敎』도 동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상호교류가 많이 이루어졌고, 두 기관 간에 인적교류도 활발했다.”고 증언했다.

5) 시인 고은은 2012년 1월 25일 여태동 불교신문 기자와 자신의 저서 『바람의 사상』과 『두 세기의 달빛』(한길사) 출간 인터뷰의 구술을 통해 “법정과의 지중한 인연이 있으며 문학 활동을 하는데 가교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6) 여태동, 「60년대 말 70년대 중기 法頂의 사회민주화 운동 研究 - 『영혼의 母音』에 나타난 원고를 중심으로」, 『전문화연구』 2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20, pp.255-295.

주로 주를 이루고 있고, 시(詩)에 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의 시를 파악해 본 결과 15편의 시가 보인다. 여기에는 자연 친화적인 시와 실존적 고민(존재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담은)의 시가 보이고 사회 참여적인 시도 보인다.

< 법정의 시 15편에 보이는 경향성 >

번호	시 제목	게재지	게재 시기	시 성격
1	봄밤에	『大韓佛敎』	1963년 5월 1일	자연 친화적
2	快晴	『大韓佛敎』	1963년 7월 1일	자연 친화적
3	어떤 나무의 분노	『大韓佛敎』	1963년 10월 1일	자연 친화적
4	靜物	『大韓佛敎』	1964년 3월 1일	자연 친화적
5	微笑	『大韓佛敎』	1964년 9월 27일	자연 친화적
6	먼 강물 소리	『大韓佛敎』	1965년 1월 17일	실존적 고민
7	병상에서	『大韓佛敎』	1965년 4월 4일	실존적 고민
8	식탁유감	『大韓佛敎』	1965년 5월 30일	실존적 고민
9	내그림자	『大韓佛敎』	1965년 10월 17일	실존적 고민
10	立席者	『大韓佛敎』	1967년 2월 26일	실존적 고민
11	초가을	『大韓佛敎』	1968년 9월 1일	자연 친화적
12	茶來軒 日誌	『大韓佛敎』	1969년 11월 9일	사회 참여적
13	쿨룩 쿨룩	『간다, 바라 - 법정스님 사유 노트 미발표 원고』	1974년 2월 7일	사회 참여적
14	1974년의 인사말	『간다, 바라 - 법정스님 사유 노트 미발표 원고』	1972년 2월 10일	사회 참여적
15	1974년 1월	『씨올의 소리』 1975년 1·2월호	1974년 중반에서 말	사회 참여적

이번 논고에서는 법정이 남긴 시 15편을 분석해 보고 이들 시에 들어 있는 법정의 존재의식과 사회의식의 흐름을 살펴서 법정사상 연구의 영역을 넓혀보고자 한다.

II. 『大韓佛敎』에 기고한 詩 12편

1. 자연 친화적인 1960년대 초기 詩

『大韓佛敎』에 기고한 1960년대 초기 법정의 시는 자연 친화성의 감정이 녹아 있는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초기 습작같이 보이는 작품도 있지만 깊은 감수성을 일깨운다. 1960년대 초기 시에서는 자연 친화성의 시들이 눈에 띈다. 또한 법정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솔직한 마음도 드러내기도 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봄밤에」다.

내 안에서도
 움이 트는 것일까.
 몸은 欲界에 있는데
 마음은 저 높이 無色界天.

아득히 떨어버린
 江 건너 목소리들이
 어찌자고 또
 들려오는 것일까.

하늘에는
 별들끼리
 눈짓으로 마음하고

산도
 가슴을 조이는가
 얼음 풀린
 개울물 소리-

나도
 이만한 거리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한 천년 무심한
 바위라도 되고 싶어.7)

1963년 5월 1일에 발표한 시다, 이 시기는 법정이 해인사와 서울을 오가던 시기다. 불교사전 편찬에 참여한 뒤 운허스님을 도와 경전 번역을 해오던 시기이

7) 笑笑山人(法頂), 「봄밤에」, 『大韓佛敎』, 1963년 5월 1일자 5면.

다. 이 시는 법정이 ‘笑笑山人’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시다.⁸⁾ 해인사에 머물렀던 소소산방(笑笑山房)의 이름을 따서 ‘笑笑山人’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다. 필명을 사용한 이유는 같은 시기에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설화를 연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이듬해인 1964년에 동국역경원이 창립되었고 그때부터 조계종단 차원에서 역경사업이 활발했다. 그 당시는 운허가 역경사업을 주도했고 법정은 운허를 도와 서울과 해인사를 오가던 때로 보인다. ‘하늘’, ‘별’, ‘산’, ‘개울물 소리’, ‘바위’ 등 자연 친화적인 단어가 즐비하다.

「봄밤에」는 법정이 쓴 최초의 시(詩)다. 겨울을 지내고 봄이 오는 여정을 언급하며 “내 안에서 움이 트는 것일까.”⁹⁾라는 어구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실존적 고민이 보이는 작품이다. 이 내용은 시인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 나무에게로’라는 시구처럼 겨울이라는 인고의 계절을 버텨 내고 봄에 희망을 찾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보인다.

온 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 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¹⁰⁾

황지우는 고난의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아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법정의 첫 시 「봄밤에」와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 2개월 이후 발표한 시 「快晴」에서도 ‘시인 법정’은 자연을 벗 삼아 화두를

8) 불교신문, 「신문으로 읽는 한국불교 역사」, 『불교신문 50년사』, 불교신문사, 2010, p.109, “필자 ‘笑笑山人’은 법정의 필명일 가능성이 높다.”

9)笑笑山人(法頂), 「봄밤에」, 『大韓佛敎』, 1963년 5월 1일자 5면.

10)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민음사, 1985, p.67.

참구(參究)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루한 장마비 개이자
피꼬리 새 목청 트이고
흙대에 흐르는
물소리도 여물다.

나무 잎새마다
햇살 눈부시고
매미들의 합창에
한가로운 한낮

산은
그저 山인 양 한테
날개라도 돌치려는가
이내 마음 간지러움은

이런 날은
「無子」도 그만 쉬고
빈 마음으로
눈 감고
숨죽이고
귀만 남아 있거라.

- 舊稿에서¹¹⁾

자연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를 관조하는 범정이지만 언제나 수행자의 태도는 견지하고 있다. “이런 날은 / ‘無子’도 그만 쉬고”¹²⁾에 보이는 것처럼 늘 ‘無’라는 화두를 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두를 든다는 것은 자신을 찾아 나서는 일이기도 하다. 출가 수행자라면 당연지사로 삼아야 할 자기관조는 ‘화두참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시대에 왔다 간 선승이자 무애도인 오현스님(1932~2018)¹³⁾의 시 ‘심우(尋牛)에 나타난 것처럼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심우’의

11) 笑笑山人(法頂), 「快晴」, 『大韓佛敎』, 1963년 7월 1일자 7면.

12) 앞의 시.

13) 백원기, 「무산오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선시의 이해와 마음치유』, 동

모습이기도 하다.

심우(尋牛)
 무산심우도(霧山尋牛圖)
 누가 내 이마에 좌우 무인(拇印)¹⁴⁾을 찍어놓고
 누가 나로 하여금 수배하게 하였는가
 천만금 현상으로도 찾지 못할 내 행방을.

천 개 눈으로도 볼 수 없는 화살이다.
 팔이 무릎까지 닿아도 잡지 못할 화살이다.
 도살장 쇠도끼 먹고 그 화살로 간 도둑이여.¹⁵⁾

자연과 소통하며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고, 자신의 감정에 이입시켜 자신을 관조한 범정은 초기 가운데서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대자연에 마음을 투영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시가 「어떤 나무의 憤怒」다. 이 시는 ‘상처투성이 얼굴’이 보이는데 이는 해인사 계곡에 상처받은 나무를 의인화한 것이다.

보라!
 내 이 상처투성이의 얼굴을.

그저 늙기도 서럽다는데
 네 얼굴엔 어찌하여 빈틈이 없이
 칼자국뿐인가.

내게 罪라면
 무더운 여름날

인, 2014, p.306, “스스로를 ‘설악산 산지기’라고 한 무산오현(1932~2018)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여섯 살 때 절간 소머슴으로 입산, 1959년 성준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신흥사 주지를 역임하고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백담사 만해마을 이사장과 회주 및 조실을 지냈다. 1968년 <시조문학>의 추천을 받아 등단한 그의 시조집으로 『심우도』, 『절간이야기』와 산문집으로 『산에 사는 날에』, 『선문선답』,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그리고 신경림 시인과의 대담집 『열흘간의 만남』 등이 있으며 ‘공초문학상’과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행했다.

14) 손도장.

15) 조오현 저·권영민 엮음, 『적멸을 위하여』, 문학사상, 2012, pp.71-72.

서늘한 그늘을 大地에 내리고
 더러는
 바람과 더불어
 덧없는 세월을 노래한
 그 罪밖에 없거늘
 이렇게 벌하라는 말이
 人間憲章의
 어느 條文에 박혀 있던 말인가.

하잘것없는 이름 석 자
 아무개!
 사람들은 그걸 내세우기에
 이다지도 극성이지만
 저 건너
 八萬도 넘는 그 經板 어느 모서리엔들
 그런 자취가 새겨 있는가
 지나간 당신들의 祖上은
 그처럼 겸손했거늘
 그처럼 어질었거늘...

언젠가
 내 그늘을 거두고
 故郷으로 돌아가는 날,
 나는 證言하리라
 殘忍한 무리들을
 모진 그 獸性들을.

보라!
 내 이 상처투성이의 처참한 얼굴을¹⁶⁾

시 도입부에 “물 맑고 수풀 우거진 陝川 海印寺. 거기 新羅의 선비 崔孤雲님이 노닐었다는 學士臺에는, 遊覽하는 나그네들의 이름자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수백 년 묵은 전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¹⁷⁾라는 글귀가 있다. 이는 해인사

16) 범정, 「어떤 나무의 憤怒」, 『大韓佛敎』, 1963년 10월 1일자 7면.

17) 앞의 시.

홍류계곡 학사대의 상처받은 전나무를 모티브로 쓴 이 시는 상처받은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의 마음으로 녹아들어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님의 마음 저변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존재론적 무상함의 허전함이 들어 있는듯함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시적 은유가 한층 심화돼 있는 이 시에서 법정은 무상한 인간의 유한(有限)을 거론하며 고려대장경(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조성한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지 않은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교훈은 법정이 대장경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

스님은 1960년 통도사 운허스님을 중심으로 7명의 편집위원들과 『불교사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그 후 1962년에는 『선가귀감』을 번역하고, 1967년 동국역경원 편찬 부장을 맡으며 『법화경』, 『숫타니파아타』 등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부터 고(故) 서경수 동국대 교수와 함께 2년여에 걸쳐 『우리말 불교성전』을 출간하게 이릅니다. 당시 스님은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에 누가 이름을 새긴 적이 있는가?”하시며 저자로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¹⁸⁾

자연 친화적 성향이 가득한 시는 「靜物」이라는 시에서도 보인다. 1964년 3월에 발표한 이 시는 쟁반 위의 한 알의 사과를 놓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사과에서 느끼는 맛보다 사과를 바라보며 그리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그리움은 은하수 건너편의 별들과도 연관 지어진다.

한 쟁반 위에
한 사과 알의 빛을
이만치서 바라보다
날 저물고

이제
과일이란
맛보다도
바라보는
그리움

18) 박성직 엮음, 『법정 편지-마음하는 아우야』, 녹야원, 2011, p.181.

銀河 건너 별을
두고 살 듯 …

- 너무 가까이 서지 맙시다.
- 너무 멀리도 서지 맙시다.¹⁹⁾

‘은하 건너 별’이라는 시구는 법정이가 즐겨 읽었던 『어린왕자』의 이야기가 연상된다. 사하라 사막에서 만난 어린왕자 나눈 대화는 흥미롭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어떤 별에서 왔어?”
그 순간 신비스런 어린 왕자의 존재를 밝혀 줄 한줄기 빛이 언뜻 비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린왕자에게 재빨리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머리를 끄덕였다.²⁰⁾

법정은 이러한 ‘별’을 시에 녹여 낸다. 이어지는 법정의 시 「微笑」도 한 편의 수채화를 연상하게 한다.

어느 해던가
欲界 나그네들이
山寺의 가을을 찾아왔을 때
구름처럼 피어오른
코스모스를 보고
때 묻은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이 한때를 위한
오랜 기다림의 가늘은 보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손이 있었다.
앞을 다투는 거친
발길이 있었다.

19) 법정, 「靜物-距離」, 『大韓佛敎』, 1964년 3월 1일자 7면.

20)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베델스만, 2001, pp.17-18.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지니지 못하는
어둡고 비뚤어진 人情들 …

산그늘도 내리기를 머뭇거리던
그러한 어느 날
나는
안타까워하는 코스모스의
눈매를 보고
마음 같은 표지를 써 붙여 놓았다.²¹⁾

이 시는 ‘讀者詩壇’이라는 코너에 실린 시다. “欲界 나그네들이 / 山寺의 가을을 찾아왔을 때 / 구름처럼 피어오른 코스모스를 보고 / 때 묻은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범정은 ‘무아를 깨달은 지혜’를 갈구한다.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접어든 수행자의 흔들리는 마음이 언 듯 먼 산 구름처럼 보인다.

조건들의 흐름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세속의 현상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허위’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인가.
… (중략) …

그러므로, ‘무아를 깨달은 지혜를 통해’ 윤회로 재생하는 원인인 무지와 그 씨앗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은 이들은 그에 대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회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²²⁾

그렇지만 이 시를 통해 범정은 “안타까워하는 코스모스의 / 눈매를 보고 / 마음 같은 표지”²³⁾의 미소로 답을 한다. 출가 수행자이자 한 사람의 인간사의 내면에 “아름다움을 / 아름답게 지니지 못하는 / 어둡고 비뚤어진 인정들…”²⁴⁾을 담아내며 갈등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 결국 혼돈의 우주질서를 갈무리할 수

21) 범정, 『微笑』, 『大韓佛教』, 1964년 9월 27일자 4면.

22) 미팜 린포체 지음·최로덴 번역, 『깨따까, 정화의 보석-입보리행론 지혜품: 반야 바라밀 주석서』, 2020, pp.203-204.

23) 범정, 『微笑』, 『大韓佛教』, 1964년 9월 27일자 4면.

24) 앞의 시.

있는 ‘코스모스의 눈매’를 살피는 감수성 가득한 ‘시인 법정’을 본다.

2. 실존적 고민이 담긴 1960년대

1960년대 초기의 시들이 자연 친화성이 주를 이루었다면 중기의 시들은 존재론적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다. 추상적인 느낌의 시어가 다소 등장하는 1960년대 법정의 중기 시에는 존재론적 고민의 내용이 녹아 불교와 사회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소 모호한 느낌의 시도 있지만 3.4조의 시 운율도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불교교단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삼는 시도 보인다.

窓戶에
山그늘이 번지면
수련수련 스며드는
먼 강물 소리

이런 걸 가리켜 세상에서는
외롭다고 하는가?
외로움쯤은 하마
벗어버릴 때도 되었는데
이제껏 치른 것만 해도
그 얼마라고

살아도 살아도
늘 철이 없는 머시매
내 조용한
해질녘 日課라도
치를까보다.
노을에 눈을 주어
아득한 迂回路를 ...
호오 호오
입김을 불어
호야를 닦고

물통에 반만 차게
물을 길어 오자.²⁵⁾

‘창호’, ‘산그늘’, ‘강물’, ‘해질녘’, ‘노을’ 등 자연 소재의 단어가 등장한다. 제목 「먼 강물소리」가 전해주듯 이 시에서 ‘시인 범정’은 외로움을 언급하고 “이제껏 치른 건만 해도 그 얼마”라며 ‘외로움은 벗어버릴 때도 되었다.”고 독백을 한다. 독신비구의 삶을 “살아도 살아도 / 늘 철이 없는 머시매”²⁶⁾라며 저녁일과를 보내며 노을에 눈을 돌려 리고 있다. 전기가 없던 시절 저녁 불을 밝히는 ‘호야’를 닦고 우물물을 길러 먹던 시절을 연상하는 물통이 등장하고 조금은 부족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물통 반 채우기’로 표현하는 듯하다.

1960년대 중기 시 가운데 솔직하고 인간미 넘치는 시가 「병상에서」다. 대부분의 시가 자연친화적인 소재인데 비해 이 시는 아주 개인적인 감회가 진하게 묻어나는 작품이다.

누구를 부를까
가까이는 부를 만한 이웃이 없고
멀리 있는 벗은 올 수가 없는데 …

지난밤에는 熱氣에 떠
줄곧 헛소리를 친 듯한데
무슨 말을 했을까.

앉을 때에야 새삼스레
혼자임을 느끼는가.
성할 때에도 늘 혼자인 것을

또
熱이 오르네
四肢에는 보오양계
土雨가 내리고
가슴은 마냥 가파른 고갯길

25) 범정, 「먼 강물 소리」, 『大韓佛敎』, 1965년 1월 17일자 4면.

26) 앞의 시.

이러다가 肉身은
죽어가는 것이겠지 ...
바흐를 듣고 싶다
그중에도 ‘토카타와 후우가’ D短調²⁷⁾를
장엄한 落照속에 묻히고 싶어

어둠은 싫다
초침 소리에 짓눌리는 어둠은
불이라도 환히 켜둘 것을

누구를 부를까
가까이는 부를 만한 이웃이 없고
멀리 있는 벗은 올 수가 없는데 ...²⁸⁾

혼자 사는 출가 비구의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시 「병상에서」는 제목 그대로 몸이 아파 몸져누워 있으면서 느낀 소회를 솔직하게 쓴 작품이다. 혼자 사는 처지라 아파도 가깝게 부를 이웃도 없고, 벗들도 멀리 있어 찾아올 수 없는 암울한 심정을 고백한다.

지난밤 몸에 열이 펄펄 끓어 ‘헛소리’까지 한 것 같은데 혼자임을 느끼는 막연한 외로움은 존재론적 고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성할 때도 늘 혼자인 것을”이라며 존재론적 외로움은 애시당초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위안을 삼는다.

다시 몸에 열이 오르고 ‘흙비(土雨)가 내리고 가슴은 가파른 고갯길’이 되는 대목은 몸이 아파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당시에는 황사(黃紗)도 없던 시절인데 ‘토우(土雨)’라는 단어를 등장시켜 몸 상태가 좋지

27) 「토카타와 푸가 D단조」, Daum 백과사전, 클래식 백과.(2020.10.20. 검색)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97XXXXXXXX125>

“뛰어난 오르가니스트였던 바흐의 기량과 기교를 잘 보여주는 ‘토카타와 푸가 D 단조’는 바흐의 초기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다. 특히 강렬하고 극적인 도입부가 인상적으로, 후대 음악가들에 의해 여러 버전으로 편곡되었다. 이 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판타지아’에도 등장한다.”

28) 笑笑山人(法頂), 「病床에서」, 『大韓佛敎』, 1965년 4월 4일자 4면.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범정의 취향도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라는 곳에서 간파할 수 있다.

불교교단 내의 문제를 시로 표현한 첫 번째 시가 「식탁유감」이다. 이 시는 1965년 5월 30일자 『大韓佛敎』에 게재돼 있는 작품이다.

(1)

우리는
풀을 뜯는 草食動物

食卓은 그러니까
純粹草原

불면 날을 듯한
까칠한 잎새들

오고 가는 몸짓에도
푸성귀 냄새

(2)

‘성한 몸에 성한 정신’
새삼스런 말씀

住持를 말아도
任期를 못 채우고

한낮에도 안개 속
가벼운 體重

한국 比丘僧의
장백한 食性

(3)

먹는 것이 가늘수록
施恩이 적느니라

아암 그렇고말고
그 무게가 어떤 것이라고

病들어 먹는 藥이
施物이 아니라면

靑山 아래 閑主자리
쓸쓸한 미소

1965.5.3.²⁹⁾

이 시와 관련된 내용은 법정이 1967년 11월 12일자 『大韓佛敎』에 기고한 글 「가사상태(假死狀態)」라는 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난 가을 한국종교인협회 모임이 익산 원불교본부에서 열린 때의 일입니다. 몇 분의 스님들과 함께 필자도 그 자리에 끼여 이틀 동안 빈틈없이 스케줄을 따라 지내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가장 곤란한 것은 식탁이었습니다.

신부님을 비롯해서 다른 교직자들은 식사 때마다 즐겁게 먹곤 했는데, 우리는 먹는 체 하고만 말았습니다. 빈 젓가락을 들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생선은 괜찮지요?” 하였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찬은 장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등 마는 등 서너 끼니를 지내니, 맥이 빠져 ‘회이고 뭐고 따뜻한 방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체력으로는 지고 있다는 것이 그때의 솔직한 느낌이었습니다.³⁰⁾

이 글에서 법정은 불교교단의 식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물론 우리가(아니, 필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음식도 과분합니다. 그러나 예의 ‘과포’라는 증상으로 자주 앓아 눕게 될 때마다 식생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³¹⁾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더불어 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살다가는 구도자의 사명은 고사하고 몸 시중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

29) 笑笑山人(法頂), 「食卓有感」, 『大韓佛敎』, 1965년 5월 30일자 4면.

30) 법정, 「假死狀態」, 『大韓佛敎』, 1967년 11월 12일자 3면.

31) 앞의 기사.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승려들이 이렇다 할 작업하나 못하고 입만 살아 허송세월을 하는 것도, 못난 소리 같지만 결국 ‘흡수와 배설의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변명하고 싶습니다.

이 몸뚱이가 유기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시로 경험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가 자랑될 일은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 오늘의 현실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승단의 식생활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일등 중에 하나입니다. ‘但療形枯³²⁾의 희미하고 소극적인 뒤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의 앞마당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생활 개혁은 헤비급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누렇게 말려진 채 假死狀態에 놓여 있는 한국불교의 동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³³⁾

1960년대 중반의 불교계 스님들의 식생활과 열악한 영양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즘 사찰음식이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대이고 보니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스님들의 영양불균형이 심각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승단의 식단개선을 요구하는 현실적 제안은 당시의 시급함을 느끼게 해 준다. 몇 년 되지 않지만 서울살이의 고단함이 배여 있는 시가 ‘내 그림자’는이다. 해인사와 서울을 오가며 번역을 하던 법정이 서울에 정착하며 똑심 봉은사에 걸망을 풀었지만 봉은사와 서울 종로를 오가며 느끼는 일상의 피곤함이 커커이 쌓인 시다.

너를 돌아다보면
울컥, 목이 매이더라.
일이 지는 해질녘
歸路에서는 -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
늘 서성거리는
서투른 서투른 나그네.

산에서 내려올 땐

32) 김호성, 『계초심학인문 새로 읽기』, 정우서적, 2005, p.80, “須知受食 但療形枯 爲成道業 / 공양을 받는 것이 다만 몸의 허약을 치료하고 도업(道業)을 이루기 위함을 알아야 한다.”

33) 법정, 『食卓有感』, 『大韓佛敎』, 1965년 5월 30일자 4면.

生氣 파아랑더니
 都心の 티끌에 빛이 바랬는가?

‘피곤하지 않니?’
 ‘아아니 괜찮아 ...’

하지만 21번 합승과
 4번 버스 안에서
 너는 곧잘 조을고 있더라
 철 가신 네 맥고모처럼

오늘도 너는 나를 따라
 山과
 市井의
 岐路에서
 수척해졌구나
 맑은 눈매에는 안개가 서리고 ...

‘스님, 서울 중 되지 마이소’
 그래
 어서어서 산으로 데려가야지
 목이 가는 너를 돌아다보면
 통곡이라도 하고 싶어
 안스러운 안스러운 그림자야 -34)

1965년 말에 쓴 이 시에서 범정은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 / 늘 서성거리는 / 서투른 서투른 나그네”라는 표현과 “산에서 내려올 땐 生氣 파아랑더니 / 도심의 티끌에 빛이 바랬는가?”는 표현으로 서울생활에서 느끼는 피곤한 심적 상태를 표출한다. “스님, 서울 중 되지 마이소”라는 시구와 “그래 어서어서 산으로 데려가야지”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범정의 마음은 언제나 ‘산승(山僧)’임을 잊지 않은 듯하다. 1975년 많은 고뇌를 안고 불일암으로 은거하지만 일찍이 범정은 상경해 생활할 때부터 산중을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4) 범정, 「내 그림자는」, 『大韓佛敎』, 1965년 10월 17일자 4면.

3. 사회참여에 눈뜨는 1960년대 후기 詩

1960년대 후기에 접어들어서면서 범정의 시 경향은 또 한번 변화한다. 실존적 고민의 흔적을 넘어 좀 더 우울함이 더해지는 그로테스크한 경향이 진해진다. 이는 내부적인 심적 변화라기보다는 사회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문제제기도 하면서 부닥치는 심적갈등을 일상에 빚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시가 「입석자」다.

그에게는
칼렌다를 걸어들 벽이없다.

바람소리 들으며
먼 山 바라볼 窓이 없다.

꿨어앉아
마주 대할 像이없다.

季節이 와도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는 늘
영겨주춤한 앉음새로
地圖가 붙은 手帖을 꺼내 들고
다음날 하늘 表情에 귀를 모은다.

그는
구름 조각에 눈을 팔리느라
地上의 言語를 익히지 못했다.

그는
뒤늦게 닿은 市民이 아니라,
너무 일찍 와버린 길손이다.

그래서

立席者는
 문밖에 서성거리는
 먼길의 나그네다.³⁵⁾

1970년에 접어들어 적극적인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법정이 1967년 때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는 시다. 이 시로 보아 법정은 1960년대 말부터 정부 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불교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이 1967년 전국신도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1969년에는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박정희 정권도 불교계에 호의적이었지만 법정은 정부에 쓴 소리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요주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의 시는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 일색이었다.

지난 밤
 산골에 몸부림하던 소나기
 여름날에 못다한
 열정을 쏟더니
 오늘은
 안개
 수척해진 樹林에
 달무리 안개
 저 無色界天에
 ‘비둘기’라도 띄울까

山房
 한나절의
 허허로운 이 無心을
 遠觀山有色
 近聽水無聲
 茶爐에 차는 끓어도
 더불어 마실 이 없네.
 여름철 도반들은
 엇그제 하산을 하고

35) 법정, 「立席者」, 『大韓佛敎』, 1967년 2월 26일자 4면.

해발 천이백
눈 감고
귀로 듣는
초가을 안개
비발디의 ‘가을’
아다지오 몰토³⁶⁾

이 시는 범정이 그림을 보고 쓴 시다. 1968년 9월 1일자 『大韓佛敎』를 보면 이난호 작가가 그림 산수화에 ‘화제(畫題)’를 붙이고 시를 쓴 것으로 확인된다. ‘遠觀山有色’이라는 부제를 달아 초가을의 그림풍경을 한 문단의 시로 표현했다. 글씨나 그림으로 말하면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시를 쓴 느낌이다. 이 시에서는 범정의 심적상태가 표현돼 있지 않고 그림의 풍광이 시로 표출돼 있다. 1960년대 후반기의 시 가운데 비교적 담담한 마음으로 쓴 시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 로에 차는 끓어도 / 더불어 마실 이 없네 / 여름철 도반들은 / 엇그제 하산을 하고”³⁷⁾라는 표현은 어딘가 우울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범정은 “비발디의 ‘가을 / 아다지오 몰토’³⁸⁾라는 시적 표현으로 클래식을 선호하는 자신의 음악적 성향도 드러내고 있다.

連日 아침안개
下午의 숲에서는 마른 바람소리

눈부신 하늘을
童話책으로 가리다
덩굴에서 꽃씨가 튀긴다.

비틀거리는 해바라기
물든 잎에 취했는가
쥐가 쓸다 만 맥고모처럼
고개를 들지 못한다.

36) 범정, 「초가을-遠觀山有色」, 『大韓佛敎』, 1968년 9월 1일자.

37) 앞의 시.

38) 앞의 시.

法堂 쪽에서 은은한 搖鈴 소리
落葉이 또 한잎 지고 있다.

나무들은 내려다보리라
虛空에 팔던 視線으로
얽어진 제 그림자를

窓戶에 번지는 찬 그늘
白자 果盤에서 가을이 익는다.

화선지를 펼쳐
篆刻에 印朱를 묻히다
이슬이 내린 정결한 뜰
마른 바람소리
아침 안개

▲茶來軒은 江건너 있는 奉恩寺 別堂.³⁹⁾

1969년에 발표한 「茶來軒 日誌」는 당시 범정이 암울한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노골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다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래헌’에서 일상은 평화롭지 않다는 느낌을 시적으로 전해 준다. 이 시에서 보이는 ‘비틀거리는 해바라기’, ‘쥐가 쓸다 만 맥고모처럼’, ‘창호(窓戶)에 번지는 찬 그늘’, ‘마른 바람소리’, ‘얽어진 제 그림자’ 등의 표현은 범정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범정은 경전번역과 『大韓佛敎』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글을 게재하는 한편 불교계를 대표하는 진보적인 스님으로 알려져 타종교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나가기도 하고 부지런히 진보적인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1973년 발간한 『영혼의 모음』의 글 맨 끝에 붙어있는 출처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III. 사회 참여적 성격의 1970년대 詩

39) 범정, 「茶來軒 일지」, 『大韓佛敎』, 1969년 11월 9일자 4면.

1. 『씨올의 소리』에 게재한 저항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정은 사회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자신의 주의주장을 펼친다. 이미 장준하, 함석헌과 인연이 있었던 범정은 1972년 『씨올의 소리』가 주최한 ‘民族統一의 構想, 討論會’에 참석해 발언을 한다. 그 내용이 그해 8월호에 게재되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들으러 왔습니다.”⁴⁰⁾라며 겸손해 하는데 실제 발언내용은 많은 생각으로 준비해 온 듯 일목요연하게 토론했다.

저는 소박한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략) … 첫째 상호간에 종래의 고정관념, 가령 자유민주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이념이라든가 사상이 옳다고 고집할 때 현실적으로 재결합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중략) … 둘째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저쪽을 상호간에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쪽을 바르게 알고 또한 이쪽을 바르게 알리는 일, 그동안 오해가 이해로서 전환될러머는 우선 알고 알리는 일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재결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 … (중략) … 민족이라 할 때 어떤 배타적인 것보다도 가장 인연이 짙은 이유, 다시 말하면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민족으로서의 감정적인 동질화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 (중략) … 넷째는 아까 咸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지도이념, 종래 어떤 기성관념에서 벗어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여기에는 현재보다 오히려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둔 그런 새로운 지도이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소박하게 네 가지로서 생각해 봤습니다.⁴¹⁾

『씨올의 소리』에 처음 이름을 올린 범정은 이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민주인사로 활동한다. 당시 『씨올의 소리』에는 장준하, 함석헌 등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체로 사찰대상 인물로 분류되어 당국의 감시를 받았다. 이런 와중에 범정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도 이름을 올려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민주화 인사로 활동했다. 그 결과물이 「1974년 1월」이라는 시다.

40) 범정, 「民族統一의 構想/討論會」, 『씨올의 소리』, 씨올의소리사, 1972년 8월호, p.50.

41) 앞의 책, pp.50-51.

1.

나는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一部 몰지각한 者
大韓民國 住民 3천 5백만
다들 知覺이 있는데
나는 知覺을 잃은 한 사람.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길거리에서
또한 住居地에서도
내 곁에는 노상
그림자 아닌 그림자가 따른다.
機關에서 고정배치된
네 개의 私服
그 그림자들은
내가 어떤 動作을 하는지
스물 네 시간을 줄곧 엿본다.⁴²⁾

… (중략) …

8.

우리는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一部 몰지각者
大韓民國 住民 3천 5백만
다들 말짱한 知覺을 지녔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知覺을 잃었는가.
아, 이가 아린다.
어금니가 아린다.
입을 가지고도 말을 못하니
이가 아리는가.
들어줄 귀가 없어 입을 다무니
이가 아리는가.

42) 범정, 「1974년 1월-어느 沒知覺者의 노래」, 『씨올의 소리』, 1975년 1·2월호, p.60.

들어줄 귀가 없어 입을 다무니
이가 아리는가.
오늘도 부질없이
齒科病院을 찾아 나선다.
흔들리는 그 계단을 오르내린다.⁴³⁾

저자 ‘法頂’이라는 이름 다음에 직책을 ‘本誌 編輯委員’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이 시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으며 법정이 받았던 감시와 탄압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박정희 정권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이런 시를 쓴 법정의 강직함과 정의감에 불탔던 감정을 표현한 시로 평가된다.

2. 미발표된 저항 시

1974년 2월 전후해서 뒤늦게 세상에 2편의 시가 선보인다. 이들 시는 2018년에 출간된 책 『간다, 파라 - 법정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에 들어있다. 2편의 시는 앞에 소개한 「1974년 1월」이라는 시 이후에 쓴 시다. 첫 번째 시가 「쿨룩 쿨룩」이다.

쿨룩 쿨룩
웬 기침이 이리 나오나.
쿨룩 쿨룩

이번 감기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네.
쿨룩

범이 없는 막된 세상
입 벌려 말 좀 하면
쿨룩 쿨룩

비상군법회의 붙여
십 오년 징역이라.

43) 앞의 책, pp.65-66.

쿨룩

자격을 또 십오년이나
빼앗아 버리니
쿨룩 쿨룩

이런 법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쿨룩 쿨룩

입 다물고 기침이나 하면서
살아갈거나.
쿨룩 쿨룩

기침은 마음 놓고 해도
그 무슨 조치에 걸리지 않는지
쿨룩 쿨룩

기침도 두렵네
기침도 두렵네
쿨룩 쿨룩 쿠울루욱 ...44)

이 시는 '1974년 2월 7일'에 쓴 시로 기록돼 있다.⁴⁵⁾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의 서슬이 시퍼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다. 『간다, 바라』에는 “이 무렵 스님도 반체제 재야인사인 함석헌, 장준하, 지학순 주교 등과 함께 수감되어 비상군법회의 계엄법정에서 1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⁴⁶⁾고 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한편의 비슷한 경향의 시가 쓰이는데 「1974년의 인사말」이다.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만나는 친구들이

44) 법정, 「쿨룩 쿨룩」, 『간다, 바라-법정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 김영사, 2018, pp.223-224.

45) 앞의 책, p.224.

46) 앞의 책, p.238.

내게 묻는 안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밖에 무슨 인사를 나눌 것인가.

별일 없었느냐구
없지 않았지
별일도 많았지
세상이 온통 별일뿐인데
그 속에서 사는 우리가 별일이 없었겠는가.
낮선 눈초리들에게 내 뜰을 엿보이고
불러서 오락가락 끌려 다녔지.
다스림을 받았지.
실컷 시달리다 돌아올 때면
또 만나자더군
정 떨어지는 소린데
또 만나자고 하더군
별이 없었느냐구.
왜 없었겠어.
治字가 모자라 별일 없었지.
친구여, 내 눈을 보는가
눈으로 하는 이 말을 듣는가.
虛言은 입으로 하고
眞言일랑 눈으로 하세
아, 우리는 이 시대의 병어리
말 못하는 병어리

몸조심 하세요.
친구들이 보내는 하직인사
그래, 몸조심 해야지.
그 몸으로 이 긴 생을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돼
내 몸이
내게 메인 게 아니거든⁴⁷⁾

47) 앞의 책, pp.225-227.

이 시는 『씨올의 소리』 12월호에 게재된 「돌아본다 1974년」의 첫째 문단의 제목이기도 하다.

1974년의 인사말

연말이 가까워지면 누구나 지난해를 돌아보게 된다.⁴⁸⁾

이처럼 법정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당시 민주화 인사였던 함석헌, 장준하 등과 긴밀하게 교류를 가지면서 사회민주화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활동하며 ‘참여시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측면으로 법정의 사상을 연구하는 새로운 영역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저항 시 발표 이후 신변의 변화

법정은 『씨올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글과 시를 기고했다. 그 대표적 글이 앞에 언급한 「1974년 1월」 시다. 이보다 한 호 앞선 『씨올의 소리』 12월호에서 법정은 비슷한 내용의 장문의 글을 실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말은 한결같이, “그 동안 별 일 없었느냐”는 것이다. “별일 없었느냐” 혹은 “별고 없었느냐”는 이 말밖에 무슨 인사말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만큼 우리들은 별일과 別故 속에서 별스럽게 살았던 것이다. 이 세상이 온통 <별일>뿐인데 그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찌 별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말은 이제 우리들에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관광호텔에 투숙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인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1974년 이 韓半島 남쪽에서 일부 물지각자로 불린 사람들에게는 밤사이의 안부가 아니라 白晝의 안녕이 문제였기 때문이다.⁴⁹⁾

「돌아본다 1974년」은 10쪽에 달하는 긴 글로 당시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준다. 법정이 살았던 처소에 사복경찰이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48) 법정, 「돌아본다 1974년」, 『씨올의 소리』, 1974년 12월호, p.43.

49) 앞의 책, p.43.

1월 8일 밤 대통령 긴급조치가 발동되자 그때까지 「憲法改正 請願운동」을 벌였던 중추 멤버들은 갑자기 沒知覺者가 되어 호되게 다스림을 받는다. 내게는 그 다음날 食前아침 機關에서 왔다는 네 사람의 私服이 그 시각부터 고정배치의 임무를 띠게 된다. 그들은 내 一舉一動을 낱낱이 살피어 시간마다 上部에 보고한다. 변소에만 가도 따라붙을 만큼 그 私服들은 충직한 그림자가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것은, 절에 왔던 신도들을 내 앞에서 검문하던 일. 이 일은 가족잡마와 함께 두고두고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電話가 공공연하게 가로채이는 일은 그전부터 있는 일이지만, 우편물도 검열을 받아 슛제 개봉이 되어 들어오곤 했다. 그리고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어떤 書信은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이다. 저 專制君主 시절에도 上疏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억울한 백성들이 두들길 복이 있었다는데, 이 時代의 市民들은 자갈을 물린 채 쉬쉬 눈치만 살피면서 병어리가 되고 귀머거리와 장님이 되었던 것이다. 오로지 國民總和를 위해서.⁵⁰⁾

박정희 독재정권이 개정한 헌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이로 인해 고초를 겪기도 했다. 긴급조치가 발동되고 개헌이 이루어진 정부의 행태를 보고 법정은 “정말 무섭고도 비민주적인 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⁵¹⁾며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말을 해 놓으면 그 시간부터 그것은 무서운 법이 된다. 그 말을 털끝만치라도 어기거나 비방하면 15년 징역에다 또한 15년 자격까지 정지된다. 일찍이 이런 법이 우리 歷史 안에 언제 있었던가. 이런 법이기 때문에 民主的인 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청원운동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이 일로 우리들은 中央情報部로 혹은 非常軍法會議 검찰부로 실려 다녔었다. 많은 동료들이 重刑을 받아 복역 중이다.⁵²⁾

긴급조치가 발동되면서부터 헌법개정 청원운동을 벌였던 당시 민주인사들은 상당한 감시와 고초를 당했는데 함석헌, 계훈제 장준하 등이 이들이었다.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이 그해 11월 27일 발표되었다. 여기에 불교계를 대표해 법정도 앞장서고 있었다.

50) 앞의 책, p44.

51) 앞의 책, p44.

52) 앞의 책, p44.

3. 政府가 곧 國家라는 專制的 思考方式은 民主主義에 逆行하는 것이며 反政府는 反國歌가 아니다. 民主國家의 國民은 國家를 위하여 政府에 수시로 要望事項을 提示하여 政府의 失政을 批判하여 是正을 促求하고 나아가서는 政府의 退陣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데에 民主體制의 發展의 生命力이 있는 것이다. 오늘 國家紀綱을 송두리째 紊亂시키는 것은 不正腐敗가 이 나라에서 판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民主主義의 本質의 要素인 自由로운 批判이 封鎖되어 온 때문이다. 우리는 反政府行動으로 말미암아 服役, 拘束, 軟禁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人士들을 赦免 釋放하고 그들의 政治的 權利를 回復시키고 言論의 自由를 保障할 것을 要求하는 바이며 그럼으로써 民主的 過程을 통한 國民의 合意위에 國家課業의 遂行을 뒷받침할 참다운 國民總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確言한다.⁵³⁾

이러한 절박한 시국선언은 당시 『씨올의 소리』 관계자 가운데 편집위원인 김동길, 장준하가 구속 중이었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당시에는 문화공보부가 『씨올의 소리』에 대한 압류와 삭제 지시, 인쇄인으로 하여금 인쇄를 기피하거나 거부케 하는 압력행사 등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⁵⁴⁾ 당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범정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헌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불교계 인사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놓고 있었다.⁵⁵⁾ 이 같은 범정의 반정부 활동으로 상당한 고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범정 원적 후 발간된 책에 게재된 「1974년 1월」이란 시의 각주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체제에 반대하는 지식인, 종교인들을 구금하고 탄압할 때 몸소 겪은 심정을 표현한 시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검거해 감옥으로 보냈다. 이 무렵 범정도 반체제 재야인사인 함석헌, 장준하, 지학순 주교 등과 함께 수감되어 비상군법회의의 계엄법정에서 1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혁당 사건⁵⁶⁾을 계기로

53) 「시국선언」, 『씨올의 소리』, 1974년 11월호, p.125.

54) 『씨올의 소리』, 1974년 11월호, pp.3-4.

55) 앞의 책, p.127.

56) 안희, 『연합뉴스』, 2007년 1월 23일자.

“인혁당 사건”이란 1973년 서울대 학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를 계기로 ‘반(反)유신 운동’이 격화된 상황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배포돼 다음해 4월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됐다. 긴급조치 4호는 반유신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주

스님은 출가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번민하던 끝에 서울 봉은사 생활을 마감하고 조계산 송광사 산내 폐사지에 불일암을 지어 머물기 시작했다⁵⁷⁾

IV. 결론

법정은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15편의 시를 남겼다. 거기에는 자연 친화적인 시부터 존재론적 고민이 담긴 시들이 들어 있다.

주로 초기에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고 박정희 정권이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해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개정해 통과시킨 후 독재체제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항거했던 ‘시인 법정’은 『씨올의 소리』에 이름을 올리며 사회 민주화와 민족통일에 주안점을 둔 글과 함께 시대의 암울한 현신을 고발하는 ‘참여시인’이 된다.

1960년대 초기 자연 친화성의 시를 발표했던 법정은 어린왕자와 같은 감수성을 지닌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다. 1963년에 발표한 첫 시 「봄밤에」에 “하늘에는 / 별들끼리 / 눈짓으로 마음하고”⁵⁸⁾라는 구절은 1973년에 발간한 『영혼의 모음』에 들어있는 어린왕자의 감수성과 맞닿아 있다.

더러는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다. 밤하늘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인다. 방울 처럼 울려올 네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혼자서 웃을 머금는다. 이런 나를 곁에서 이상히 여긴다면, 네가 가르쳐 준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네...⁵⁹⁾

동자들이 1969년 이래 남한에서 지하조직으로 암약한 인혁당과 연계를 맺어왔고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며 다수의 학생들을 구속했다. 구속된 도예중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씨 등 8명은 대통령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며, 20여 시간 만인 다음날(4월 9일)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사건발생이 난 지 32년만인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57) 법정 글·리경 엮음, 「1974년 1월」, 『간다, 봐라 - 법정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 김영사, 2018, p.238.

58) 법정, 「봄밤에」, 『大韓佛敎』, 1963년 5월 1일자 5면.

‘시인 법정’의 모습은 생소하지만 법정은 분명 1960년대 초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여러 시편을 남긴 시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 시들은 자연 친화의 모습을 띠었으며 중기에는 존재론적 고뇌가 녹아 있는 시들이 주를 이루었다. 말기에는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뜨면서 이를 반영하는 시들이 발표됐다. 더러는 정보기관의 감시의 그림자가 신변에 다가오는 모습이 시의 행간(行間)에 표출되기도 했다.

1975년 송광사 불일암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법정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민주화 운동인사로 분류되어 박정희 정권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시인 법정’의 활동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면모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1960년대 말기와 1970년대 초기 사회민주화 운동 활동과정에서 발표한 3편의 시는 당시 불교민주화 운동의 역사에도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흔히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의 불교계 사회민주화 운동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법정의 시들에 나타나는 면모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 대해 논할 때 『무소유』를 쓴 작가로 대표적인 에세이스트로 알고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초기에는 자연 친화적인 시를 썼고 중기에는 실존적 고뇌의 흔적이 들어있는 시를 썼으며 후기와 1970년대 초기에는 사회민주화를 위한 ‘참여시인’의 시 경향 추이가 보인다는 점은 새롭게 조명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이 불교계를 비롯해 우리사회에 널리 인식되어 불교민주화 운동 역사와 법정사상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59) 법정, 『靈魂의 母音-어린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영혼의 모음』, 동서문화원, 1977, pp.305-306.

참고문헌

- 김호성, 『계초심학인문 새로읽기』, 정우서적, 2005.
- 김옥수, 「법정선사(法頂禪師)의 선차문화(禪茶文化)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
- 미팜 린포체 저·최로덴 역, 『깨따까, 정화의 보석-입보리행문 지혜품: 반야바라밀 주석서』, 담앤북스, 2020.
- 박성직 엮음, 『법정스님 편지-마음하는 아우야』, 녹야원, 2011.
- 백원기, 『선시의 이해와 마음치유』, 동인, 2014.
- 법 정, 『영혼의 모음』, 동서문화원, 1977.
- _____, 『영혼의 모음』, 샘터사, 2010.
- _____, 『버리고 떠나기』, 샘터사, 1993.
- _____, 「봄밤에」, 『大韓佛敎』, 1963년 5월 1일자.
- _____, 「快晴」, 『大韓佛敎』, 1963년 7월 1일자.
- _____, 「어떤 나무의 憤怒」, 『大韓佛敎』, 1963년 10월 1일자.
- _____, 「靜物」, 『大韓佛敎』, 1964년 3월 1일자.
- _____, 「微笑」, 『大韓佛敎』, 1964년 9월 27일자.
- _____, 「먼 강물 소리」, 『大韓佛敎』, 1965년 1월 17일자.
- _____, 「病床에서」, 『大韓佛敎』, 1965년 4월 1일자.
- _____, 「식탁유감」, 『大韓佛敎』, 1965년 5월 30일자.
- _____, 「내 그림자는」, 『大韓佛敎』, 1965년 10월 17일자.
- _____, 「立席者」, 『大韓佛敎』, 1967년 2월 26일자.
- _____, 「假死狀態」, 『大韓佛敎』, 1967년 11월 12일자.
- _____, 「초가을」, 『大韓佛敎』, 1968년 9월 1일자.
- _____, 「茶來軒 日誌」, 『大韓佛敎』, 1969년 11월 9일자.
- _____, 『씨울의 소리』, 씨울의소리사, 1972년 8월호.
- _____, 『씨울의 소리』, 씨울의소리사, 1974년 12월호.
- _____, 『씨울의 소리』, 씨울의소리사, 1975년 1·2월호.
- 불교신문, 「신문으로 읽는 한국불교 역사」, 『불교신문 50년사』, 불교신문사, 2010.
- 법정 글·리경 엮음, 『간다, 봐라-법정스님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 김영사, 2018.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베넬스만, 2001.
- 안 희, 「인혁당 사건」, 『연합뉴스』, 2007년 1월 23일자.
- 여태동, 「60년대 말 70년대 중기 법정(法頂)의 사회민주화 운동 연구(研究) - 『영혼의 모음』에 나타난 원고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2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20.

이명숙, 「법정(法頂) 수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정 희, 「법정(法頂)의 ‘무소유’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2008.

조오현 지음·권영민 엮음, 『적멸을 위하여』, 문학사상, 2012.

황지우, 『겨울나무에게서 봄나무에게로』, 민음사, 1985.

황수남, 수필집 「무소유에 나타난 생태주의적 사유」, 『인문학 연구』 통권 8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홍화식, 「法頂禪師의 茶禪思想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논문, 2020.

Abstract

A Study on the Existence and Social Consciousness
in Ven. Beopjeong's Poetry

Yeo, Tae-dong
(Ph.D. Candidate at Dongbang Culture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poetic world of Ven. Beopjeong (1932~2010), who awakened the 'Original Sound of Souls' by living together in our times. It is not well known to the world that Ven. Beopjeong, who delivered clear and fragrant teachings to a society, wrote fifteen(15) poems.

Ven. Beopjeong, however, wrote tens of poems containing existential agony from the early 1960s to the mid-1970s, and also wrote poems about participation in resisting the absurdities of society. In the 1970s, he used to protest against the Yushin(維新) dictatorship and served as a representative figure of the Buddhist community as well.

Ven. Beopjeong lived a public life in Gangwon(講院) and Seonwon(禪院) at Haeinsa-Temple after renouncing the world and learning the teachings of Buddha by embracing his basic knowledge as a disciplinant. There, he learned 『Hwaeomgyeong(華嚴經)』 from Ven. Unheo.

Ven. Beopjeong, dedicated to studying the "Forest of the Tripitaka", graduated from Haein Kangwon(海印講院) and went to Tongdosa Temple in 1960 to participate in the compilation of 『The Buddhist Dictionary』.

Since moving to Seoul, Ven. Beopjeong left 14 poems in Daehan Buddhism Newspaper, the predecessor of the Buddhist newspaper, from the early 1960s to the 1970s. In the early 1960s, nature-friendly poetry was his main theme. There were poems containing existential concerns in the mid-1960s.

In the late 1960s, Ven. Beopjeong's poetic tendency changed once again, which included social issues. It tended to add more melancholy beyond the traces of existential concerns. Rather than an internal change of mind, this tendency seems

to be a main factor in the psychological conflicts that came as a result of being interested in social democratization and issues having happened from the 1960s' Korean society.

In the 1970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ook a dictatorship after declaring an emergency martial law in 1972 and passing the “the Yushin Constitution”(維新憲法) on October 17 that year. On top of that, Ven. Beopjeong showed a “participatory poet” who accused the grim reality of the time.

Generally, he has been known as an author who wrote his landmark essay “Non-possession.” In the early 1960s, however, he wrote nature-friendly poems and in the mid-1960s, decades of poems containing ontological troubles. In the late 1960s and the early 1970s, he showed a face of ‘participatory poet’ tendency for social democratization, which was revealed in recent years.

I hope that his poetic spirit will be widely recognized in our society, including the Buddhist community, and various studies on the history of the Buddhist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is ideology will be conducted as well.

Key words

Ven. Beopjeong, Poetic world, “Non-possession”, 《*Daehan Buddhism*》, 『The Buddhist Dictionary』, “Forest of the Tripitaka”, Haein Kangwon(海印講院), Tongdosa Temple, “participatory poet”, “the Yushin Constitution”(維新憲法).